

광주은행도 '몸집' 키워 시중은행 될 수 있다

금융당국, 은행권 과점 깨기 나서...31년 만에 새 시중은행 예고 지방·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추진 "은행산업, 경합시장으로 전환"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굳어진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도 추진하는 등 은행업계 '무한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광주은행이 몸집을 키워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예기로, 광주·전남에서 제2의 광주은행이 탄생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경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과점 체제가 이자 장사에만 치중하는 관행으로 이어졌다는 판단 아래 지난 2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은행업계에 신규 플레이어, 즉 '메기'를 풀고자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우선 단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이 전국적 지점망을 가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밝힌 상태이며, 금융당국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전환 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등장하는 것

이다.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정책도 '오픈 포지션'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인가 방침을 먼저 발표한 뒤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으나 자금력과 적절한 사업 계획만 갖췄다면 언제든지 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향토은행'인 광주은행도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광주은행은 자산규모 등 다방면에서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자체 평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지점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계 은행 원화 예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활성화, 핀테크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금융 업무 범위 확대 등 금융회사와 IT 간 협업을 강화한다.

기본 금융회사 간 대출·예금 금리 경쟁도 촉진한다.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는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TF 논의 초반 핵심 논의 사항이었던 특화 전문은행이나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은 미뤄졌다.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 은행 핵심 기능인 수신 및 지급 결제 부분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 났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금리 및 성과급 체계도 개편한다.

시장금리의 급격한 변동이 대부분 저주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하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변동형 금리가 대부분인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고금리 상품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조정 속도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등으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은행 홀로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며 '돈 잔치'를 이어갔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성과급 조정 및 한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장기 성과에 기반한 성과 보수 지급을 강화하고 임직원 성과급·희망퇴직금 및 배당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이자 장사 대신 비이자이익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과 신탁업 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의 종합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병원, 회계법인 등 비금융 전문회사와 협업을 허용해 다양한 신탁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가업 이어 사업 확장...지역 대표 강소기업 되겠다”

비즈 & 피플 <8>이명근 전남석재 대표

30년 간 묘지 조성·석재 조경·간판석 제작 등 전문 건설업 '스톤건설'·건설기계임대 '온누리산업' 운영

“묘지조성은 후손이 선조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입니다. 예(禮)를 갖추고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명근(43·사진) 전남석재대표는 전남지역을 대표하는 묘지조성업 기업의 젊은 CEO다. 합평에 소재한 전남석재는 묘지조성과 석재조경, 간판석 제작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1992년 설립된 전남석재는 이명근 대표의 아버지인 이화동씨가 설립한 회사로, 창업 30년을 지나오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사실 전남석재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함께 운영했던 '형제석재'가 그 모태다. 이 대표의 아버지는 10년 후 독립해 합평에 전남석재를 창업했다.

이 대표는 “아버지가 워낙 꼼꼼하고 부지런한

성격이라 회사가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전남석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건 2005년이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졸업과 동시에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하게 됐다.

“컴퓨터에 흥미가 있어 대학 전공을 선택했지만 어릴 적 봐온 아버지의 일인 석재조경이 저의 '전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회사 일을 시작하게 됐죠.”

묘지조성은 세상을 떠난 부모와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일인 탓에 고객들의 관심은 물론, 요구사항도 많다고 한다. 그렇기에 본인의 직업에 대한 뿌듯함과 보람도 크다는 게 이 대표의 얘기다.

“현재 진행 중인 묘지조성 현장을 의뢰한 고객이 95세 어르신이에요.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현장에 오십니다. 공사가 잘 진행되는 것을 보고 매년 흐뭇해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 일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 대표는 “일을 맡긴 어르신은 '본인 삶의 마지막 일'이라고 하시더라”며 “완공되면 지인들

을 모두 불러서 자랑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고 회상했다.

본인의 일에 자부심이 대단한 이 대표지만, 세월이 따른 변화의 흐름은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최근 매장 문화가 자취를 감추면서 묘지조성업이 점차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문 견수와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가 전남석재 외에도 10여명의 임직원을 둔 2개 법인을 설립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대표는 철근콘크리트와 토목공사 등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스톤건설과 석·목재 도·소매와 건설기계임대업을 전문으로 하는 온누리산업을 창업해 운영 중이다. 30년을 이어온 가업을 포기할 수 없어 2018년 전문건설업에 뛰어 들었다.

“아직 한창 젊을 때”라고 말하는 이명근 대표는 “아버지가 일궈온 회사이니 만큼,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경영에 나설 것”이라며 “전남석재를 기반으로 스톤건설과 온누리산업 등 기업을 지역을 대표할 강소기업으로 키워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청년창업자금 400억 증액 중기진흥공단, 올해 2500억

청년전용창업자금 예산이 작년보다 400억원 늘어난다.

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청년전용창업자금을 2500억원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400억원 증액된 것이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술성과 사업성은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에 빌려주는 정책 자금이다. 기업의 신용등급과 재무 상태를 반영하지 않고 창업 아이템과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연 2.5% 고정금리로 기업 당 최대 1억원까지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79.00(-14.31)
↑ 코스닥	891.18(+1.18)
↓ 금리(국고채 3년)	3.618(-0.001)
↓ 환율(USD)	1298.60(-2.80)

효성중공업, 수소엔진 발전기 개발 박차

오스트리아 INNIO엔바허와 합의각서 체결... '수소 선도국 달성 일조' 그룹 비전 착착

효성중공업은 4일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INNIO 엔바허(INNIO Jenbacher)와 수소엔진 발전기 실증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이번 MOA 체결에 따라 효성중공업과 INNIO엔바허는 탄소중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소엔진 발전기 판매 확대에 협력하게 된다. 수소엔진 발전기는 수소와 천연가스를 모두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출력 조정 및 기동정지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양사가 양산화를 준비 중인 수소가 100% 전소되는 수소엔진 발전기는 재생에너지와 융합해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을 보완하고,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효성중공업은 효성화학 용연공장에서 생산 중인 부생수소를 사용해 수소엔진 발전기 가동을 준비 중에 있다.

효성그룹 조현상 부회장은 지난 6월 'Korea H2 Business Summit' 2차 총회에서 “효성그룹은 2000년부터 CNG 충전사업, LNG, 수소충전소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장 저변 확대에 노력해 왔다”라며 “수소 선도국가 달성에 일조하겠다”라고 그룹의 미래 비전을 밝힌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INNIO엔바허 관계자와 효성중공업 이만섭(오른쪽) 기전PU장이 MOA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효성 제공>



전남농협, 상호금융 달성탑 전수식 가져

압해농협 예수금 1천억·완도농협 대출금 3천억 달성 등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는 5일 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7월 정례조회에서 상호금융 달성탑 전수식을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

압해농협(조합장 전성태)은 예수금 1000억원을 달성했고, 완도농협(조합장 김미남)과 서영광농협(조합장 강상호), 동북농협(조합장 김정수)은 대출금을 각각 3000억원, 1000억원, 700억원을 달성했다.

상호금융 달성탑은 농협중앙회가 예수금, 대출금에 대해 농·축협의 건전경영과 내실성장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박종택 본부장은 “대내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합원과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이뤄낸 소중한 성과에 감사드린다”며 “전남농협은 앞으로 고객과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고, 농업·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캐스퍼 신규 고객 주유비 받으세요

현대차·현대카드, 9월 30일까지 l 당 천원...연 240 l

현대자동차가 현대카드, GS칼텍스와 함께 캐스퍼 신규 고객의 주유비를 지원한다.

현대차는 이달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현대차의 경형 SUV 모델 '캐스퍼' 계약 및 출고를 완료한 고객에게 l 당 1000원의 주유비 할인 혜택을 1년간 매달 20 l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주유비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현대카드의 현대차 전용 신용카드로 캐스퍼 구매 시 500

만원 이상을 결제하고 블루 세이브-오토 프로그램 이용 후 캐스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 신청 후 카드 대금을 납부한 다음 달 초에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는 '바로할인 보너스카드' 번호를 GS칼텍스 '에너지플러스'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면 앱 내 '바로주유' 기능을 통해 GS칼텍스에서 주유비 결제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차량을 구매할 때뿐만 아



니라 운행할 때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유비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판매 촉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광주 대표 선발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제15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이하 KeG) 광주 대표 선발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 대표 선발전'은 리그 오브 레전드(5인 팀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개인전),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개인전) 등 3개 종목에서 치러진다.

각 종목 1위 팀(인)에게는 광주시장상이 수여되며, 입상자는 오는 8월 19일 전북 군산시에서 개최되는 대통령배 KeG 전국 결선에 광주시 대

표 자격이 주어진다.

온라인 예선은 이달 22일, 오프라인 본선은 29일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진행되며, 본선 경기는 공식 유튜브(https://www.youtube.com/c/광주이스포츠경기장)를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오는 16일까지로, 광주 이스포츠경기장 홈페이지(https://www.gicon.or.kr/esports)에서 대회 참가 신청 자격요건 등 참가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